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
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갯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
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
오
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스 잠’**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
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A]

[B]

* 내: 동안.
* 울력: 힘을 실어 줌.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부각한다.
- ③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표출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⑤ 도치의 구문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 ② [A]와 [B]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 ③ [A]와 [B] 모두 상승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전환한다.
- ④ [A]에서는 타인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고, [B]에서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B]에서는 현실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으로서의 초라한 이미지를 보이기도 하고, 쓸쓸함을 자아내는가 하면,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는 한계 상황이나, 상념의 투사가 가능한 스크린이 연상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정서와 처지를 드러내며 삶과 가치관을 집약한다.

- ① ‘쓸쓸한 것’, ‘외로운 생각’과 같은 구절을 통해 ‘흰 바람벽’을 마주하고 있는 화자의 고독이 직접 노출되고 있군.
- ② ‘흰 바람벽’이 자아내는 누추한 느낌은 ‘십오촉 전등’이나 ‘낡은 무명셔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심화되고 있군.
- ③ ‘흰 바람벽’은 ‘좁다란 방’과 의미적 대립을 이루어 화자가 봉착한 삶의 한계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지치운 불빛’과 ‘어두운 그림자’로 비유되고 있군.
- ④ ‘흰 바람벽’의 백색이 지닌 깨끗한 이미지는 자신을 ‘높’게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세계와 연결되며, 이를 통해 ‘가난하’지만 고결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흰 바람벽’은 화자의 상념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화자는 ‘초생달’, ‘프랑스스 잠’ 등 열거한 자연물과 인물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1) 2015년 3월 모의고사 국어A 31-33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향단아 그냘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갈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서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 [A]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울통불통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불거져 나왔다
 군데군데 굳은살에 웅이가 박혔다
 먼 길 걸어왔단 뜻이리라
- [B]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꺾질 그 안 쪽으로
- [C]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 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묻고 풀 몇 포기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 준다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 [D] 그것은 또 그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그러나 선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 [E] 때 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잡지 않는다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다

-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

38.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기며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는 (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시를 낭송하는 것은 시를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의 수나 길이 등은 시를 낭송할 때의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낭송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여 낭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1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짧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머언 바다'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해야겠어요.
- ② 2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체로 빠르게 낭송하고, 특히 '아주 내어 밀듯이'는 지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에 유의하는 게 좋겠어요.
- ③ 3연은 명령형 종결 어미가 반복되며 화자의 정서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므로, 특히 마지막 행에서는 느낌표에 유의하여 격정적인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④ 4연은 다른 연에 비해 행의 수가 적어 음절 수가 적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고, 특히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좌절감이 드러나는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 ⑤ 5연은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점차 빨라지는 급박한 호흡으로 낭송하고, 특히 '향단아'를 읽을 때는 체념적 어조로 낭송하는 게 좋겠어요.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나)는 '나무'로 상징되는 식물적 이미지를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하는 상상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삶을 이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A]: 웅이가 박힌 느티나무 뿌리를 먼 길을 걸어온 발로 치환하는 상상력이 나타나고 있군.
- ② [B]: 화자는 느티나무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느티나무와의 교감을 시도하고 있군.
- ③ [C]: 속살이 썩어 비어 가는 느티나무 몸통에 꽃을 피우는 풀의 모습에서는 자연물에 내재된 원리가 드러나고 있군.
- ④ [D]: 화자는 상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E]: 화자는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는 자기 긍정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패고품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짝 소리를 들었다
 ㉡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들의 모습이
 ㉢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 고자 했다.

- 광재구, 「절망을 위하여」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음성 상징어를 구사하여 시적 생동감을 부여한다.
- ③ 의문형 진술의 사용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한다.
- ④ 부정적 서술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
- ⑤ 처음과 끝을 유사한 구조로 상응하여 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44. 마음의 패고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이 땅'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 ㄴ. 화자가 '절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ㄷ. '이방의 발짝 소리'의 주체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나타낸다.
- ㄹ. '사랑'과 '추억'이 결핍된 상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비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 보 기 >

이 작품은 암울했던 당대의 사회 현실과 관련이 깊다. 시인은 자유가 억압된 삭막한 현실과 민중들의 불안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화자를 등장시켜 현실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 ~ ㉤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당시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은 주변에 대해 관심조차 줄 수 없는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삭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은 민중들이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은 억압적인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민중들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군.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에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3) 2015년 4월 모의고사 국어A형 43-45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가)

㉠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라.

㉡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향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으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 정호승, 「폭풍」 -

43.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어적 표현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하강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역설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다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청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대상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여 시상의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지양하는 모습을 구체적 대상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특정한 의미로 인식되거나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거나 시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모색하는 등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로 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한 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괴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이군.
- ③ (가)에서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군.
- ④ (나)에서 '새'의 모습은, 화자에게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군.
- ⑤ (나)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폭풍'은, 화자에게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나)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빛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빛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
 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
 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
 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빛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
 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빛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
 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빛마루」-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4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안’은 화자가 빛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빛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③ 빛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빛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빛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5) 201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B형 41-43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가)

산(山)턱 원두막은 뷔였나 불빛이 ㉠의롭다
 형겁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의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조을든 문허진 성(城)터

반디불이 난다 파란 혼(魂)들 같다

어에서 말있는 듯이 크다란 산(山)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城門)이

한울*빛 같이 흰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 백석, 「정주성(定州城)」 -

* 한울: 하늘.

* 청배: 토종배인 청실배를 가리키는 말.

(나)

나는 마고자를 입을 때마다 **한국 여성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한다. 남자의 의복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사가 마고자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같은 다른 옷보다 더 값진 천을 사용한다. 또 남자 옷에 패물이라면 마고자의 단추다.

마고자는 방한용이 아니요 모양새다. 방한용이라면 덧저고리가 있고 잘덧저고리도 있다. 화려하고 찬란한 무늬가 있는 비단 마고자나 숨 둔 것은 촌스럽고, 청초한 겹마고자가 원격(原格)이다. 그러기에 예전에 노인네가 겨울에 소탈하게 방한삼아 입으려면, 그 대신에 약식인 반배를 입었던 것이다.

마고자는 삶이 알맞게 여며져야 하고, 삶기가 날렵하고 예뻐야 한다. 삶이 조금만 벌어지거나 조금만 더 여며져도 표가 나고, 삶기가 조금만 무디어도 청초한 맛이 사라진다. 깃은 직선에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둥글어도 안 되며, 조금 더 파도 못쓰고, 조금 덜 파도 못쓴다. 안이 속으로 짝 붙으며 앞뒤가 상그럽게 돌아가야 하니, 깃 하나만 보아도 마고자는 바느질 솜씨를 몹시 타는 까다로운 옷이다.

마고자는 원래 중국의 마괘자(馬褂子)에서 왔다 한다. 귀한 사람은 호사스러운 비단 마괘자를 입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청마괘자를 걸치고 다녔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고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고자는 마괘자와 비슷도 아닌 한 판 물건이다. 한복에는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옷이지만, 중국 옷에는 입을 수 없는, 우리의 독특한 옷이다. 그리고 그 마름새나 모양새가 한국 여인의 독특한 안목과 솜씨를 제일 잘 나타내는 옷이다. 그 모양새는 단아하고 아취가 있으며, 그 솜씨는 섬세하고 교묘하다. 우리 여성들은 실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받아 온 안목과 솜씨를 지니고 있던 까닭에, 어느 나라 옷을 들여 오든지 그 안목과 그 솜씨로 제게 맞는 제 옷을 지어 냈던 것이다. 만일,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없었던들, 나는 오늘 이 좋은 마고자를 입지 못할 것이다.

문화의 모든 면이 다 이렇다. 전통적인 안목과 전통적인 솜씨가 있으면, 남의 문화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이를 고쳐서 새로운 제 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송자*에서 고려의 비취색이 나오고, 고전(古篆) 금석문(金石文)에서 추사체(秋史體)가 탄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굴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예전엔 남의 문물이 해동(海東)에 들어오면 해동 문물로 변했다. 그러나 **그것은 탕자가 아니라 진주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남의 것이 들어오면 탕자가 될 뿐 아니라, 내 골짜기 탕자가 되고 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 윤오영, 「마고자」 -

* 송자: 중국 송나라 때에 만들어진 도자기.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 ④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상상의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 ⑤ 모든 연을 평서형 어미로 끝맺어 형태적 통일성이 드러난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은 '나'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은 '나'의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공간적 상황에 의해, ㉡은 현실 상황에 의해 촉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은 '나'의 현재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화자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 ㉡의 '나'는 내적인 요인에 의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보 기>

백석의 「정주성」과 윤오영의 「마고자」는 상실감을 바탕으로 하지만, 현실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주성」은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을 쇠락한 역사적 장소를 통해 보여준다. 역사적 장소인 정주성은 허망함을 불러일으키지만, 작가는 그 속에서도 일상적 삶은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낸다. 한편 「마고자」는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전통문화가 사라지는 모습을 일상적 소재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외래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 태도가 사라지고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것은?

- ① (가)의 '아즈까리 기름의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라는 표현은 고향의 적막감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가)의 '청배를 팔러' 오는 행위는 '또'와 연결되면서 허망감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군.
- ③ (나)의 '송자'와 '금석문'은 일상적 소재로, 무분별하게 수용한 외래 문화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의 '그것은 탕자가 아니라 진주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군.
- ⑤ (가)의 '문허진 성(城)터'는 허망함을 자아내고 (나)의 '한국 여성의 바느질 솜씨'는 전통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군.

6)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7)

(가)

알록조개에 입맞추며 자랐나
 눈이 바다처럼 푸를뻔더러 까무스레한 네 얼굴
 가시내야
 나는 발을 얼구며
 무쇠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전 무섭지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옥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어디서 흥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눈포레를 뚫고 왔다

가시내야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 나는 헤매이자
 술을 부어 남실남실 술을 따르어
 ㉡가난한 이야기에 고히 잠겨다오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렀을 겐데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초마쪽으로 얼굴을 가렸더나
 두 낮 두 밤을 ㉢두루미처럼 울어 울어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나

차알삭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한 듯
 때로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
 가시내야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내야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려줄게**
 손때 수줍은 분홍 땀기 휘 휘 날리며
 잠깐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나는 눈포레 휘감아치는 **별관에 우줄우줄 나설 계다**
 노래도 없이 사라질 계다
자옥도 없이 사라질 계다

-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장터」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와 함께 있는 공간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 ② ㉡:가시내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가시내가 고국을 떠나야 했던 슬픔을 나타낸다.
- ④ ㉣:가시내가 함경도 사내에게 느끼는 연민의 정서를 나타낸다.
- ⑤ ㉤:가시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나타낸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와 (나)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어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는 유랑하는 삶의 고통과 이에 대응하는 모습,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위로하는 모습 등을 그리고 있고, (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 ① (가)의 ‘봄을 불려줄게’에는 함경도 사내가 가시내의 삶을 위로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별관에 우줄우줄 나설 계다’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맞서려는 함경도 사내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 ③ (나)의 ‘가을별도 서러운’에는 유랑하는 민중들의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군.
- ④ (가)의 ‘눈포레’, ‘얼음길’과 (나)의 ‘산서리’, ‘물여울’은 유랑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나타내는군.
- ⑤ (가)의 ‘자옥도 없이 사라질 계다’와 (나)의 ‘짐부리고 앉아 쉬는’에는 현실을 극복하려는 민중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⁸⁾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해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리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땀물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땀물」-

(나)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다)

1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이 뒤,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눈을 잘 손질 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흙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 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술알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 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짚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 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웠던 잔디가 파아란 속살을 날리고, 들관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눈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눈에 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물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홍구, 「보리」-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8) 2016학년도 9월 대수능모의평가 국어A/B 34-38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벚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맘’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땀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에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위한 출발점이 된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추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⁹⁾

(가)

멋진 날들을 놓아 두고
시를 쓴다.
고궁엔 **벚꽃**,
그늘엔 **괴인 술**,
멋진 날들을 그대로 두고
시를 쓴다.

내가 시를 쓸 때
이 땅은 나의 작은 섬,
별들은 오히려 큰 나라.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시를 쓴다.**

종아리가 곧은 **나의 사람**을
태평로 이(二)가 프라스틱 지붕 아래서
온종일 기다리게 두고,
나는 호울로 시를 쓴다.

아무도 모를 마음의 빈 들
허물어진 돌 가에 앉아,
썩은 모계 껍질에다 코라도 부비며
내가 시를 쓸 때,
나는 세계의 **집 잃은 아이**
나는 이 세상의 참된 아버지.

내가 시를 쓸 땐
멋진 너희들의 사랑엔
강원도풍(江原道風)의 어둔 눈이 나리고,
내 영혼의 벚들인 말들은
까아만 비로도* 방식에 누운
아프리카산(産) 최근의 보석처럼
눈을 뜬다.
㉠ **빛나는 눈을 뜬다.**

- 김현승, 「시의 맛」 -

* 비로도: 옷감의 한 종류인 벨벳.

(나)

며칠 전 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서 바다에 사는 해달의 행태를 보면서, 몸의 언어로서의 글쓰기에 대한 그럴듯한 은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에 사백 회가량이나 물질을 하는 어미 해달은, 잠수할 줄 모르는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눕혀 놓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잠수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사 분이라 한다. 글 쓰는 사람에게 어미 해달과 아기 해달은 한 몸이다. 그는 겉뚝뚝이 머리를 잠재워 두고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쉼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해 대는 것이다.** 해달이 먹이로 좋아하는 것은 조개류이다. 해달은 해변에서 주워 온 돌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다 조개를 내리쳐 살을 꺼내 먹는데, 해달의 등뼈와 갈비뼈는 그 충격을 견뎌 낼 만큼 견고하다. 재미있는 것은 해달이 조개의 빈 껍데기를 배 위에 놓고 접시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글 쓰는 사람에게 조개껍데기는 언어가 아닐까. 언어는 글 쓰는 사람 자신의 몸 위에서 갈라지고 부서지며, 딱딱한 일상의 외피를 벗고 나서야 비로소 부드러운 속살을

9) 29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드러낸다. 그리하여 속살을 걷어 낸 한 언어의 껍질은 다른 언어의 속살을 담은 받침이 되는 것이다.
 해달은 바다 밑에 뿌리를 두고 수십 미터 옷자란 해초 다발에 몸을 감고 잔다. 그것은 밤새 높은 파도에 떠밀려 가거나, 해변이나 바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몸의 언어로 하는 글쓰기도 그런 것이 아닐까. 누군가 글쓰기가 육조를 타고 대서양 건너는 일과 같다고 했지만,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며** 날 밝기를 기다리는 것. 내가 본 프로에서 어미 해달은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물질도 할 줄 모르는 아기 해달만 남아 떨고 있었다. 글 쓰는 사람이여, 당신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 이성복,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와 (나)는 문학 행위에 대한 작가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화자가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선택한 시 쓰기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동물의 행동에 빗대어 작가의 지난(至難)한 문학적 글쓰기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뱃꽃’, ‘술’, ‘나의 사람’은 일상적인 행복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멋진 약속을 깨뜨리고 / 시를 쓴다.’는 것에서 문학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읽어 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집 잃은 아이’는 시를 쓰기 위해 방황했던 과거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몸속 깊은 곳을 들락거리며 씹 없이 연상의 물질’을 하는 것은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나)에서 ‘언어라는 연약한 물풀에 몸을 감고 밤새 뒤척이’는 모습은 문학의 언어에 대한 작가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33. (가)의 ㉠을 (나)와 연결해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달이 ‘조개를 내리쳐’ ‘부드러운 속살’을 얻는 것과 같이, ㉠은 시인이 노력 끝에 예술적 가치를 얻게 됨을 의미한다.
- ②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어미 해달의 모습과 같이, ㉠은 독자를 위해 가져야 할 시인의 희생정신을 의미한다.
- ③ ‘육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과 같이, ㉠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인의 무모함을 의미한다.
- ④ ‘아기 해달을 물 위에 발랑 뒤집어 놓혀 놓’은 어미 해달처럼, ㉠은 시인에게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으려는 도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⑤ ‘폭풍이 몰아치던 밤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간 어미 해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은 시인이 문학의 언어를 선택할 때 시대정신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⁰⁾

(가)

저물어 오는 육교 우에
한 줄기 황망한 기적을 뿌리고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가 지나간다

어두운 밀물 우에 갈매기떼 우짖는
 바다 가까이
 정거장도 주막집도 헐어진 나무다리도
 온-겨울 눈 속에 파묻혀 잠드는 **고향**

산도 마을도 포플라 나무도 고개 속인 채
호젓한* 낮과 밤을 맞이하고
 그 곳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에워싸고
 해마다 가난해가는 **고향 사람들**

맑은 비오롱*처럼
 바람이 부는 날은 **서러운** 고향
 고향 사람들의 한 줄 희망도
 진달래빛 노을과 함께
 한 번 가고는 다시 못 오기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 기대어 서서
 내 생각하고 **눈물지움**도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

- 김광균, 「향수」 -

* 호젓한: 쓸쓸하고 외로운. * 비오롱: 마이울린.

(나)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밤 사이 내려와 놀던 초록별들의
 퍼렇게 멎든 날갯죽지가 떨어져 있다.
 어린 날 뒤울안에서
 매 맞고 혼자 숨어 울던 눈물의 찌꺼기가
 비칠비칠 아직도 거기
 남아 빛나고 있다.

심청이네집 심청이
 빌어먹으러 나가고
 심봉사 혼자 앉아
 날무처럼 **끄들끄들** 졸고 있는 **Tits마루** 끝에
 개다리소반 위 비인 **상사발***에
 마음만 부자로 **썩여**주던 그 **햇살**이
 다시 눈뜨고 있다, 다시 눈뜨고 있다.
 장승상네 **참대발**의 **우레** 소리도
 다시 무너져서 내게로 **달려**오고 있다.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남의 집 대숲바람 소리 속에는
 내 어린 날 여름 냇가에서
 손바닥 벌려 잡다 놓쳐버린
 발가벗은 **햇살**의 그 **반쪽**이
 앞질러 달려와서 기다리며
 저 혼자 **심심해** 반짝이고 있다.
 저 혼자 **심심해** 물구나무 서 **보이고** 있다.
 - 나태주,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

* 상사발: 품질이 낮은 사발.

10) 2015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B형 38-40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확장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여정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39.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젓한’, ‘서러운’을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노출되고 있다.
 ② ‘한 줄기 황망한 기적’과 ‘낡은 비오름’은 고향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③ ‘한 떨기 들국화처럼 차고 서글프다’에는 ‘눈물지’을 수밖에 없는 화자의 비애감이 집약되어 있다.
 ④ ‘언제 꺼질지 모르는 / 조그만 생활의 촛불’을 통해 ‘고향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저무는 도시의 옥상’은 화자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는 시공간적 배경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케네스 버크는 문학적 소재를 크게 ‘내적 소재’와 ‘외적 소재’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창조적 의미를 지니게 된 소재라면, 후자는 잘 알려진 역사나 고전에서 선택된 소재를 의미한다. (나)는 ‘대숲바람 소리’를 중심으로 제시된 내적 소재들과 「심청전」에서 가져 온 외적 소재들이 절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작품이다. 화자의 어린 시절과 「심청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황이 겹쳐지면서, ‘심청’이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품었던 희망이 화자 자신의 어린 시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나)는 아픔 속에도 희망이 존재하며, 상처마저도 그리움과 추억이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① 어른이 된 화자가 ‘대숲바람 소리’를 통해 과거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볼 수 있군.
 ② 내적 소재인 ‘대숲바람 소리’ 속에 ‘초록별의 명든 날갯죽지’와 ‘눈물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숲바람 소리’가 환기하는 정서는 어린 시절의 아픔이라 할 수 있군.
 ③ ‘심청’이 ‘심봉사’를 혼자 남겨 두고 ‘빌어먹으러’ 나갔을 때의 장면이 외적 소재로 제시되어, 화자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군.
 ④ 외적 소재와 내적 소재가 접목되면서, ‘심청’이 지녔던 희망이 자신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이 ‘그 햇살이 / 다시 눈트’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군.
 ⑤ 외적 소재를 통해 내적 소재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고통마저도 ‘햇살’이 되었던 어린 시절을 외면해 온 화자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발가벗은 햇살’에 투영되어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¹⁾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텔레비전을 끄자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11) 2016학년도 수능 국어 A/B형 공통 43-45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혁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 ~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폴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²⁾

복사꽃이 피었다고 일러라. 살구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너이 오오래 정들이고 살다 간 집, 함부로 함부로 짓밟힌 울타리에, **앵도꽃도 오얏꽃도 피었다고** 일러라. 낮이면 벌떼와 나비가 날고 밤이면 소쩍새가 울더라고 일러라.

다섯 물과, 여섯 바다와, 철이야, 아득한 구름 밖 아득한 하늘가에 나는 어디로 향을 해야 너와 마주 서는 게나.

[A] 달 밝으면 으레 뜰에 앉아 부는 내 피리의 서른 가락도 너는 못 듣고, 꿀을 헤치며 산에 올라 아침마다, 푸른 봉우리에 올라서면, 어어이 어어이 소리 높여 부르는 나의 음성도 너는 못 듣는다.

어서 너는 오너라. 벌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벌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 흩어졌던 너이 **형 아우** 총총히 돌아오고, 흩어졌던 네 **순이도 누이도** 돌아오고, 너와 나와 자라난, 막쇠도 돌이도 복술이도 **왔다**.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 비둘기와 꽃다발과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너는 오너라…….

복사꽃 피고, 살구꽃 피는 곳, 너와 나와 뛰놀며 자라난 푸른 보리밭에 남풍은 불고, 젖빛 구름, 보오얀 구름 속에 **종달새는 운다**. 기름진 내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날닐날 가락 맞춰 **폴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실 두둥실 **봉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덩굴어 보자**.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쉽표의 잦은 사용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와의 거리에서 오는 ‘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② ‘너’로 인해 떠올린 고향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너’에게 조금씩 다가서면서 느끼는 ‘나’의 설렘이 나타나 있다.
 - ④ ‘너’에게 미처 다가서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다.
 - ⑤ ‘너’와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나’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어서 정든 집으로 귀환(歸還)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그렇게 돌아온 이들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 ① 1연에서 ‘복사꽃’, ‘살구꽃’, ‘앵도꽃’, ‘오얏꽃’ 등이 ‘피었다고’ 한 것은 ‘너’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② 4연에서 ‘형’, ‘아우’, ‘순이’, ‘누이’ 등이 이미 ‘왔다’고 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데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너’의 귀환을 재촉하는 것이겠군.
- ③ 4연의 ‘벌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과 6연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덩굴어 보자’로 보아, 함께 만들어 갈 세계는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겠군.
- ④ 5연의 ‘눈물과 피와 푸른 빛 깃발을 날리며 오너라’와 6연의 ‘종달새는 운다’로 보아,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너’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6연의 ‘폴피리나 불고’와 ‘봉새춤 추며’는 ‘너’의 귀환이 이루어진 후 ‘너’와 함께 만들어 갈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2) 2014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¹³⁾

(가)

나는 ㉠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이처럼 ㉢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라, 남북이라,
내 몸은 ㉣ 떠 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 가라. 나는 ㉤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山耕)*을 김매이는.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 -

* 보습: 땅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의 일종.

* 산경: 산에 있는 경작지.

(나)

┌ 너 들어 보았니
[A]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 푸르른 울음소리

┌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B]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 제 상처마다에서 뿜어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C]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뽕뽕히 후리던 소리

┌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D] 이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 이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E]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등등등등 울리겠니

-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

* 우듬지: 나무줄기 꼭대기.

* 면면함: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 있음.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한다.
-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다.

3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실과 대비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 ② ㉡: 삶의 터전을 상실한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제가 나타난다.
- ④ ㉣: 유량하고 있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 ⑤ ㉤: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生)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제목인 '면면함'은 이 시의 주제를 함축한다.

- ① [B], [D]의 상황 대조를 통해 '푸르른 울음소리'의 정체가 시련을 딛고 뿜어져 나오는 자연의 생명력임을 '나무'가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②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며,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뽕뽕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군.
- ③ [D], [E]를 통해 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나무'를 '쳐다보'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E]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새 희망을 주고 있음을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⑤ [A] ~ [E]를 통해 '느티나무'와 '사람들'의 삶이 동일시됨으로써, '면면함'의 의미가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삶과 생명력에 있음을 알 수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13) 2014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B형 31-33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平澤)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 고개를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 경쾌하나.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上行)」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에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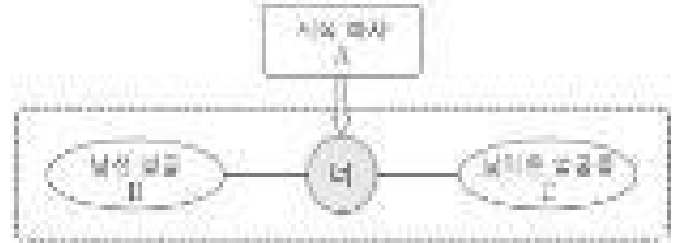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14) 2014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32. <보기>를 바탕으로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도의시킨 채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 군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 인간의 삶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의 ‘너’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A는 개인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 ② B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B의 인식 변화를 통해 ‘너’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⑤ A는 ‘너’가, C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냉철한 인식을 지니도록 요청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는 화자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특히 반어는 실제 언어로 표현된 표면적 진술 내용과 화자의 내적 표현 의도가 서로 반대되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이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① ㉠은 주어진 현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은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③ ㉢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④ ㉣은 불합리한 현실 세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사소해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군.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⁵⁾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떡울떡 떼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꾀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삼자루에 말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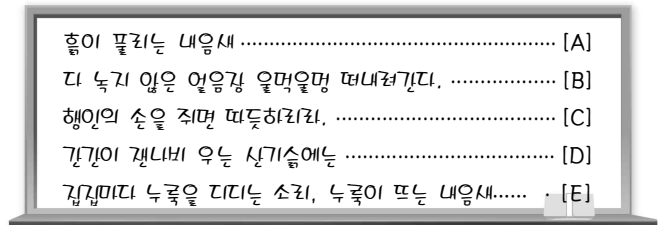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공간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A] ~ [E]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시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많이 활용됩니다. 「고향 앞에서」에 사용된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 ① [A]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B]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C]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 ④ [D]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처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⑤ [E]에서는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시인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화자는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삶의 피로움과 슬픔을 털어내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에 무력감을 느끼며 산업화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슬픔’을 ‘꾀다 버리’는 것은 삶의 슬픔을 털어 내려는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②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바라보는 것은 화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③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④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에는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겠다.
- ⑤ ‘셋강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된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15) 2014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B형 41-43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⁶⁾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A]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B]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C]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D]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E]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뒹뒹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풀어서 풀곤 했다. 생각이 웅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목, 「울정기(栗亭記)」

- ① ㉠의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16) 2015학년도 6월 대수능모의평가 국어A형 31-33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⁷⁾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용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靦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대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잡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⁸⁾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江)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江) 건너갔소 [A]

강(江) 건너 하늘 끝에 사막(沙漠)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B]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덴가** [C]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江) 건너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 짹짹 얼어 조이던: 강이 얼어 얼음의 부피가 커지면서 서로 밀치는.
 * 모래불: 좁고 긴 모래 언덕.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하는 것.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② 첫 연과 마지막 연에 유사한 시행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2.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 ② [A]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③ [B]는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 ④ [C]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 ⑤ [C]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에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18) 2014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 건너간 노래」는 식민지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이를 견디며 버텨내야 했던 이육사의 고뇌와 방황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선달’과 ‘얼어 조이던 밤’은 고통스러운 식민지 현실을 암시하는 배경이군.
- ② ‘어린 날개’는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시인의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③ ‘떨어져 타서 죽겠조’는 자신의 삶이 ‘노래’의 운명처럼 평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사막’은 ‘푸른 하늘’이 덮여 있는 공간으로,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는군.
- ⑤ ‘또 한 가락 어디덴가’는 ‘노래’가 간 곳을 몰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¹⁹⁾

(가) ① 넌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넌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나는 향기로운 넌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넌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넌은 갔지만 나는 넌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넌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 한용운, 「넌의 침묵」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땀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쉴쉴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19) 2014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B형 41-43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 노신(魯迅):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거나 중국의 의식 개혁을 주창하는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저술함.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원망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 ⑤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입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연쇄법을 사용하여 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광균의 「노신」은 시인으로서 어렵게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들리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지나는 돌팔매'에서 화자가 그동안 견뎌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쓸쓸한 것이 오장을 찢어 내린다'에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는군.
- ⑤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에서는 노신처럼 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햇빛도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스지도록
 으스스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짝'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의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¹⁾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된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접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윈 산은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래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김종길, 「고고」-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제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사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21) 2015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B형 31-33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²⁾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머했으꼬.
 ㉠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신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 이 시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된 장면들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요? 그럼 시를 꼼꼼히 읽고 아래 장면들에서 각자 파악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장면 1]	[장면 2]	[장면 3]
진주 장터	진주 장터 오가는 길	골방

- ① [장면 1]은 생계를 위해 생어물전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② [장면 1]은 팔리지 않은 고기를 통해 고단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③ [장면 2]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던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④ [장면 2]는 오누이가 진주 남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 ⑤ [장면 3]은 장사하러 간 어머니를 추위에 떨며 기다리던 오누이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22) 2014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A형 31-33

3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달빛을 보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의지를 연상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달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옹기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연상하며 어머니의 한을 떠올리고 있다.
 - ③ 화자는 옹기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삶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옹기전의 옹기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 어머니와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감에 젖어 있다.
 - ⑤ 화자는 달빛 받은 옹기들을 보며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옹기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고통스런 삶을 안쓰러워하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31 ~ 3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³⁾

(가)

삼수갑산(三水甲山)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가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山)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가네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가네 내 못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不歸)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 -

*촉도지난: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 **검은 뱀발** 때문이었다
뱀발에 위협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뱀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특정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소월은 땅, 집, 고향 등을 모티프로 여러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인 힘이나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로 그려진다. 김소월은 이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절망적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 ① 1연: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표현을 통해,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2연: ‘촉도지난’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랑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 ③ 3연: ‘새가 되면’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을 통해, 실랑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⑤ 5연: ‘못 벗어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이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의 ㉠, ㉡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순수한 자연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공포를 느끼게 하는군.
- ② ㉠은 푸른 이미지로 생명과 희망을 환기시키고, ㉡은 검은 이미지로 허무와 어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군.
- ③ ㉠은 힘겨운 삶을 극복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환희를 상징하고, ㉡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을 상징하는군.
- ④ ㉠은 삶과 관련하여 깨달음을 주지 못하지만,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는군.
- ⑤ ㉠은 화자가 미래에 살아갈 모습에 대해 상상하게 해 주고, ㉡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23) 2014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B형 31-33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⁴⁾

(가)
 해사살 피여 / 이속한* 후,
 머홀 머홀 / 곁을 읊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 축 축 죽순 돋듯
 ㉠물 소리에 / 이가 시리다.
 앞음새 같히여 / 양지 쪽에 쫓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 흰 밥알을 쫓다.

-정지용, 「조찬」-

* 이속한: 시간이 지난. * 길경: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 “그까짓 인제 뒤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고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열려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드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책상을 해 달지 않겠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 나는, 책상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중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 뎁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태준, 「파초」-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운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와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군.

24)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A형 31-33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²⁵⁾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쟁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무마 뉘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잇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최두석, 「낡은 집」-

* 예제로: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 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 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 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 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 최종 수정일 : 2018년 1월 11일

정 답

2015년 3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④ 32.④ 33.③
2015년 3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8.① 39.⑤ 40.⑤
2015년 4월 모의고사 국어 A형
43.④ 44.④ 45.④
2015년 4월 모의고사 국어 B형
43.⑤ 44.④ 45.⑤
201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B공통 현대시
41.④ 42.⑤ 43.①
2015년 7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④ 32.③ 33.③
2015년 7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1.③ 32.④ 33.⑤
2016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A/B공통
34.⑤ 35.③ 36.② 37.① 38.④
2015년 10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② 32.③ 33.①
2015년 10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8.① 39.② 40.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A/B공통
43.⑤ 44.④ 45.③

2014년 3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③ 32.① 33.④
2014년 3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1.① 32.③ 33.②
2014년 4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② 32.④ 33.⑤
2014년 4월 모의고사 국어 B형
41.③ 42.④ 43.③
2015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A형
31.② 32.④ 33.⑤
2015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B형
31.③ 32.② 33.②
2014년 7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② 32.⑤ 33.④
2014년 7월 모의고사 국어 B형
41.② 42.③ 43.⑤
2015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A형
31.② 32.④ 33.④
2015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B형
31.② 32.③ 33.①
2014년 10월 모의고사 국어 A형
31.② 32.④ 33.②
2014년 10월 모의고사 국어 B형
31.③ 32.① 33.④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31.③ 32.③ 33.④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41.④ 42.⑤ 43.①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